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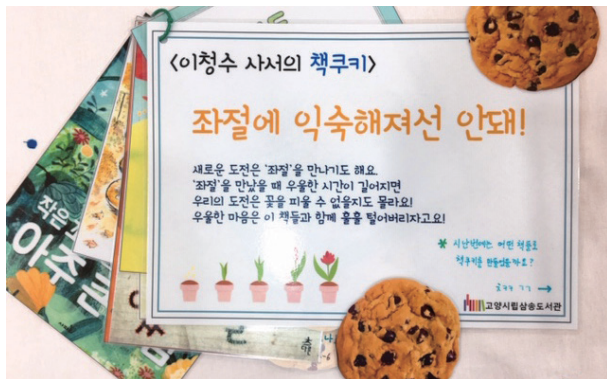
도서관 정보



쿠키 굽고 잔디 깔고 돼지 키우고 크루즈선 띄우며 요란하게 책 권하는 도서관

두 달에 한 번 책 쿠키를 굽는다. 아이들의 생각에 군침이 들게 초콜릿만콤 달콤한 문장을 듬뿍 토핑으로 엮는다. 『수줍어도 괜찮아』에는 ‘수줍은 성격은 나쁜 게 아니야’, ‘뭐든지 잘할 필요는 없어’라는 문장을 써 붙인다. 부끄럼쟁이 친구가 냉큼 손을 뻗어 책을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좌절에 익숙해져선 안 돼’를 주제로 열 권의 책을 고르고, 책마다 쿠키 모양의 메모지에 손글씨로 문장을 적으면 준비 완료!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한 <이청수 사서의 책 쿠키>를 펼치는 날은 신제품을 만들어 손님들 반응을 기다리는 제빵사의 마음처럼 두근거린다. 열 권의 책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눈꼬리와 입꼬리가 도서관 천장을 뚫을 듯 치솟는다. 그리고 저절로 터져 나오는 환호성, “완판!” 이게 바로 책 권하는 맛이지.

글·사진 손정은·이청수 사서(삼송도서관)



이청수 사서의 책 쿠키



나의 작고 소중한 가족을 주제로 한 큐레이션

책 권하는 즐거움

완판의 즐거움은 다음 큐레이션의 동력이 된다.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게 만든다. 이번 여름에 찾아온 문헌정보학과 실습생에게도 큐레이션을 해보라고 권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함께 키우는 인문서 학생이 ‘나의 작고 소중한 가족’을 주제로 책들을 고르고 펼쳤다. 그런데 딱딱한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으니 표지에 등장한 반려동물들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근처 마트로 달려가서 잔

디를 사다 깔아주었더니 큐레이션에 온기가 더해졌다. 요즘 어린이자료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잔디 위에서 노는 고양이, 강아지, 토끼들을 만나러 달려온다. 종합자료실에는 봉준호 감독의 핑크 돼지 ‘옥자’가 산다. 지난 2월 <손정은 사서의 아무튼, 책>에서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을 조명했다. 봉준호 감독에 관한 책, 그가 쓴 시나리오집, 영화 DVD를 한데 모아놓았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웠다. 소품을 조미료로 쓰고 싶었



손정은 사서의 아무튼, 책 큐레이션



이애영 북큐레이터의 '아모르파티'

다. 오랜 발품 끝에 드디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 돼지 ‘옥자’를 만났다. 한 가지 흠이라면 목청이 너무 크다는 것. 무심코 만졌다가는 ‘깹!’하는 옥자의 울음소리가 자료실에 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옥자의 주인인 손정은 사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큐레이션은 ‘으스스한 여름밤’을 주제로 한 스릴러다. 벌써 설레고 기대된다. 건강도 취미도 여행도 책으로 즐기는 게 가장 안전한 날들이 되어버렸다. 우리 도서관의 이애영 북큐레이터가 심혈을 기울인 기획 코너 ‘아모르파티’에는 Health(건강), Hobby(취미), Travel(여행)에 관한 책들을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았다. 책 주변에는 이애영 북큐레이터가 수집한 해외 여러 나라의 기념품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여행책 위에 위풍당당하게 놓인 크루즈선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가게 될 여행을 잠시나마 꿈꿔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도서관 곳곳에 책 권하는 코너를 만들다 보니 말없이 서가에 꽂혀 있던 책들이 독자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이용자들도 큐레이션 책 코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자료실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동네 작가, 새 책> 코너가 있고, 시사 문제를 다룬 <이슈 이슈>도 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직원들이 읽고 권하는 <직원's pick>이다. 내놓기 바쁘게 빌려 간다. 우리 동네 온라인 맘 카페에도 <직원's pick>에 관한 반응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올린 큐레이션 사진에 “오 좋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보니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넘실거리네요”, “제가 희망도서 신청한 책이라 눈이 가네요!” 이 정도면 책 권하는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의 바람은 두 가지다. 어서 빨리 도서관 문이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책들이, 그 안의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착하기를.